現地에서본 印象記

極東의 安全保障과 韓國

震光 俞 <法政大講師>

◇월 자◇

韓·美·日 삼각방위체제 구축

韓·美방위조약 補強긴요

「나토」式으로 自動介入되게

極東「힘의 眞空상태」극복

무력도발 저지위한 노력 시급

社說

姉妹結緣과 本大學의 姿勢

「아이오아」州立大學과의 結緣에 부쳐

東國譯經院의

환골대정경

비유와 우화 엮어

부처님의 人格과 敎訓 풀이한 興味있게 읽을수있는 文學作品

韓相範 <授業副敎授>

理想의 貧困

國語

國學

國民學校

國語

國學

國民學校

國語

國學

國民學校

國語

國學

國民學校

2층판매장신설기념 할인및사은대매출

사은품으로 레인코-트 한벌씩 증정

2층판매장신설기념 할인및사은대매출

2층판매장신설기념 할인및사은대매출

2층판매장신설기념 할인및사은대매출

韓國人의 思考方式

言語를 通해 본

◇……人類가 다른動物을 누르고 지구상의 主人公이 되어 高……◇
◇……度한 文化文明을 창조하게된 능력은 여러가지가 있……◇
◇……다고본다。직립하여 보행하여 불(火)을 사용할줄……◇
◇……알며 도구를 만들어 그것을 操作할줄알았기 때문이다……◇

崔範勳

인류가 言語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의사관념을 말하여 남에게 소통할수 있고 남의 사상감정을 받아들일줄 안다는 주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오랜동안 언어에 관한 관심이 너무나 소홀했다。

그것은 문명과 日光이 없던 먼저 찬란한 그리스문화를 모르며 살고 있듯이 너무나 당연시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어관한 무관심은 원래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었다。

19세기에 들어와 印度로부터 시작된 言語學의 발달은 언어의 본질에관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언어의 본질을 규명해보려는 관심은 그 言語를 생활수단으로 삼아 驅使하고있는 인간의 思考形式및 意識構造에까지 규명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分野는 차츰 소근에는 언어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一元說이 크게 번지고 있다。

즉 인간이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갖는 인식할 때 그 인식을 표현하는 것이 그렇다。

「失物수가 있으니」「亡身수가 있으니」「나무목(木)자는 姓가진 사람」「口舌數」라는 것이 있다。

이제 論旨대로 언어에 나타난 韓國人의 사고방식을 條目別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無主語文章

우리말 문장에서 보면 무엇보다 눈에뜨이는것은 主語없는 문장이다。

이러한 경향은 個體性 主體性 자립정신의 부족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요 객관화한 개체중심적 사고방식이 세계로부터 遊離하지 못했으며 적극적인 사회참여의식이 박약함을 의미한다。

印歐語에서와 같이 결과(서술어)를 가져온 원인(主語)을 출구하는것이 아니요, 결과(서술어)에만 집착하는 사고방식에서 오는 현상으로보인다。

②否定語의 非論理性

「밥안먹겠니?」에 대한 대답은 안먹겠으면서도 「네 먹어。」이것은 주관성 있는 나의대답이 아니라 안먹겠느냐는 상대방의 사에 동의하는 非主體的 사고방식이다。또 부정어가 앞서는 印歐語나 중국어같은 언어가 발달한 언어로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우리말은 부정표현에 兩形을 가지고있다。

즉「안먹는다」와「먹지않는다」가 그것이다。또한 한국인은 부정적으로 사고하는습관이 있으니 부정을 부정해서 힘있는 긍정을하는 방식이 있다。「…그렇지않다고볼 수없다」「속하해 마지않는다」등등。

③個體없는集團의식

한국어 가운데 주목을 끄는 또 한 표현방식이있으니「나의 아버지」「나의 남편」「우리아버지」「우리집」「우리남편」이다。이러한 독립된자아가 사단과 아직 미분화상태의 共同의식의 발로로보인다。이러한 환경형성은 개인보다는 가문을 존중히 여기며 전체의 집단의식으로는 강하나 개체로는 약한 국민성을 가져왔다。

④抽象語의 未發達

언어의 일반적 발달단계로 볼 때 구상어로부터 추상어로 발달하는것을 정상적인 발달 단계로 본다。

우리말은 본능적 · 생리적 감각어가 발달한 반면에 추상어의 발달이 거의 없다고 하겠다。

특히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 擬音, 擬態語의발달은 매우 다채로우나 抽象語에서는 추상적 개념어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한국어의 현성이 추상어 형성단계로 완성되기 이전에 고도로 발달된漢字文化가 엄습해 온 것이다。

그러기에 現用 우리말에 漢字語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漢字語로 되어 있다。

副詞는 비교적 발달한 편이지만 명사, 형용사, 동사등은 固有語는 매우빈약한 語을 가졌을 뿐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思惟와 우리의 의식내용을정확하게 충실하게 探化하게 하고 周到하게 하는 구실을 한다。

이와같이 思惟와 언어는 有機的인 相乘작용을 해서 인류의 복잡미묘한 감정을 발전시켜 준다는 說이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言語 즉 言語觀을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삼국유사 卷二 水路夫人條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것은 노래(말)를 지어부르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

서동薯 古代歌謠 일반이 그렇듯이 이러한 언어의 呪術力 또는 魔力은 갖가지 讖謠를 낳게하였다。(三國遺事, 文獻備考) 또한「하지 말라」思想의 표현으로, 善聞에 퍼져 있는 土亭秘訣이라 는 것이 그렇다。

「구름이 있으니」「비가 있으니」「나무가 있으니」「사람이 있으니」등은 前者에 속할것이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는다는」「밥없는 말이 천리간다」등은 後者에 속한 예가된다。

이렇게 언어(말)를 背景으로 보았으나 부정적인 面이 형성되어 나타나있다。

<筆者>

이러한 현상은 모두가 이른바「전통」을 생활유범으로 삼았던 오랜 유교사상에서 우러난것으로 본다。

산란한 고찰은 멀주고 다르고,〈V〉해다르다「는 前者에 속할것이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는다는」「밥없는 말이 천리간다」등은 後者에 속한 예가된다。

이렇게 언어(말)를 背景으로 보았으나 부정적인 面이 형성되어 나타나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가 이른바「전통」을 생활유범으로 삼았던 오랜 유교사상에서 우러난것으로 본다。

산란한 고찰은 멀주고 계로 볼 때 구상어로부터 추상어로 발달하는것을 정상적인 발달 단계로 본다。

우리말은 본능적 · 생리적 감각어가 발달한 반면에 추상어의 발달이거의 없다고 하겠다。

특히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 擬音, 擬態語의발달은 매우 다채로우나 추상적 개념어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한국어의 현성이 추상어 형성단계로 완성되기 이전에 고도로 발달된漢字文化가 엄습해 온 것이다。

그러기에 現用 우리말에 漢字語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漢字語로 되어 있다。

副詞는 비교적 발달한 편이지만 명사, 형용사, 동사등은 固有語는 매우빈약한 語을 가졌을 뿐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思惟와 우리의 의식내용을정확하게 충실하게 探化하게 하고 周到하게 하는 구실을 한다。

이와같이 思惟와 언어는 有機的인 相乘작용을 해서 인류의 복잡미묘한 감정을 발전시켜 준다는 說이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言語 즉 言語觀을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삼국유사 卷二 水路夫人條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것은 노래(말)를 지어부르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

서동薯 古代歌謠 일반이 그렇듯이 이러한 언어의 呪術力 또는 魔力은 갖가지 讖謠를 낳게하였다。(三國遺事, 文獻備考) 또한「하지 말라」思想의 표현으로, 善聞에 퍼져 있는 土亭秘訣이라 는 것이 그렇다。

「구름이 있으니」「비가 있으니」「나무가 있으니」「사람이 있으니」등은 前者에 속할것이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는다는」「밥없는 말이 천리간다」등은 後者에 속한 예가된다。

이렇게 언어(말)를 背景으로 보았으나 부정적인 面이 형성되어 나타나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가 이른바「전통」을 생활유범으로 삼았던 오랜 유교사상에서 우러난것으로 본다。

산란한 고찰은 멀주고 인(主語)을 출구하는것이 아니요, 결과(서술어)에만 집착하는 사고방식에서 오는 현상으로보인다。

②否定語의 非論理性

「밥안먹겠니?」에 대한 대답은 안먹겠으면서도 「네 먹어。」이것은 주관성 있는 나의대답이 아니라 안먹겠느냐는 상대방의 사에 동의하는 非主體的 사고방식이다。또 부정어가 앞서는 印歐語나 중국어같은 언어가 발달한 언어로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우리말은 부정표현에 兩形을 가지고있다。

즉「안먹는다」와「먹지않는다」가 그것이다。또한 한국인은 부정적으로 사고하는습관이 있으니 부정을 부정해서 힘있는 긍정을하는 방식이 있다。「…그렇지않다고볼 수없다」「속하해 마지않는다」등등。

③個體없는集團의식

한국어 가운데 주목을 끄는 또 한 표현방식이있으니「나의 아버지」「나의 남편」「우리아버지」「우리집」「우리남편」이다。이러한 독립된자아가 사단과 아직 미분화상태의 共同의식의 발로로보인다。이러한 환경형성은 개인보다는 가문을 존중히 여기며 전체의 집단의식으로는 강하나 개체로는 약한 국민성을 가져왔다。

④抽象語의 未發達

언어의 일반적 발달단계로 볼 때 구상어로부터 추상어로 발달하는것을 정상적인 발달 단계로 본다。

우리말은 본능적 · 생리적 감각어가 발달한 반면에 추상어의 발달이거의 없다고 하겠다。

특히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 擬音, 擬態語의발달은 매우 다채로우나 추상적 개념어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한국어의 현성이 추상어 형성단계로 완성되기 이전에 고도로 발달된漢字文化가 엄습해 온 것이다。

그러기에 現用 우리말에 漢字語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漢字語로 되어 있다。

副詞는 비교적 발달한 편이지만 명사, 형용사, 동사등은 固有語는 매우빈약한 語을 가졌을 뿐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思惟와 우리의 의식내용을정확하게 충실하게 探化하게 하고 周到하게 하는 구실을 한다。

이와같이 思惟와 언어는 有機的인 相乘작용을 해서 인류의 복잡미묘한 감정을 발전시켜 준다는 說이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言語 즉 言語觀을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삼국유사 卷二 水路夫人條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것은 노래(말)를 지어부르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

서동薯 古代歌謠 일반이 그렇듯이 이러한 언어의 呪術力 또는 魔力은 갖가지 讖謠를 낳게하였다。(三國遺事, 文獻備考) 또한「하지 말라」思想의 표현으로, 善聞에 퍼져 있는 土亭秘訣이라 는 것이 그렇다。

「구름이 있으니」「비가 있으니」「나무가 있으니」「사람이 있으니」등은 前者에 속할것이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는다는」「밥없는 말이 천리간다」등은 後者에 속한 예가된다。

이렇게 언어(말)를 背景으로 보았으나 부정적인 面이 형성되어 나타나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가 이른바「전통」을 생활유범으로 삼았던 오랜 유교사상에서 우러난것으로 본다。

산란한 고찰은 멀주고

不정확한 數意識은 과학적思考 저해

無主語文章은 主體·個體性 부족意味

抽象語의 未發達로 推理力 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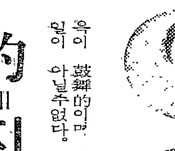
〈李姜菊子〉

〈崔範勳〉

◇…韓國文壇에서 가장 우람한 山…◇
◇…脈을이루고있는 本校出身 詩人…◇
◇…들의 모임 「東國詩人會」가 그…◇
◇…동안 뜻있는분들의 노력으로발족…◇
◇…하였다。이러한 모임의결성은 東…◇
◇…國文學을 위한 自覺의 뜻도 되…◇
◇…겠으며 펴 나아가서는 東國詩文…◇
◇…學 成長의 道程과 오늘의 모습…◇
◇…에 대한 새로운 整理의 계기가된…◇
◇…다고도할수 있겠다。 …◇

本校出身 詩人들의 「東國詩人會」 그 出帆

◇1949년 창간되어 제9輯까지 속간된 「東國詩集」



〈회장·徐廷圭교수〉 〈靈湖 부회장〉 〈黃命 부회장〉 〈李東淵 幹事〉

代文學의 特性이라할 수 있는 하나의 流派로서 그 焦點을 스스로 類約하는 기운을 보였다。

그러나 東國詩壇은 5·25로 일단 空白期를맞았으며 환도후 53年에 「東國詩集」 제2집을 내면서부터 7년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나오다 제8집에서 3년 쉬고 9집 62年에 나오더니 다시 그후 자취를 감추었다。「東國詩集」은 그동안, 거의 每輯마다 作品을 발표한 10여명씩의 同門詩人外에 延백여명의 學生詩人이 동참하여 총 4·2편의 作品을싣고 나온 詩집이 백6명을헤아렸다。詩人의 量이 반도지 詩人의 質에 비례하는바 아니겠으나 東國의 전통적 요소에서 文學—그 중에도 특히 詩文學을 배제치 않고 東國文學 내지 韓國文學 배제 韓國의 詩의 중요한 部面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상에서 요약해본 東國文學 내지 東國詩의 전통을 생각할때 지난5월 24일 그 發足을 본「東國詩人會」는 文學東國의 立場에서 韓國文學의 관점에서나 저 예술적 창작활동에 있어서 활동과 그성과를 객관적인 數値로만 측정한수만은 없겠으나 詩文學에있어서 유난히 종성한 개화를본 東國文學의 발상은 한국의新文學발상과 그시점을같이하여왔다。

그것은 처음 靈龍雲의 출현으로 대변될수있다。그의시집「님의 침묵」은 그때 신문학의 특징을 표현하고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이땅 초기 문단에 하나의지표가 되는것이다。더욱 불교적 휴머니즘을 배경으로한 東國의 추계문학의 사조적 원 흐름은 그때로 독특한 하나의 전통적개념으로서 東國大學이라는 하나의 에콜이 형성되어온 우발적인 체제라기보다, 그속에 오래 발효되어 나온 필연적인 윤곽이라 말하는 것이옵다。그것은처음 講院출신 숨려詩人群 佛專의 胚胎되어 중앙 佛專의 퇴폐적이요 회의적인 학생詩人群에 의하여 일단 그면모를 정비하고 이어 해방후의 혼란기에 다시 부닥치게 되었으나 이무렵 벌써 그문체는 찰스한 문학적 스타일을 마침내 文學作品으로서의 그 히을 벗고 나온 것이다。

이것은 해방후 東大文學에 와서 얼마간의 亂脈을 이룰수 밖에 없었으나 「東國學生詩集」의 第1輯이 翼河潤색문에 鄭靈三편집으로 1949년 5월에 창간되면서 다시現代文學의 特性이라할 수 있는 하나의 流派로서 그 焦點을 스스로 類約하는 기운을 보였다。

그러나 東國詩壇은 5·25로 일단 空白期를맞았으며 환도후 53年에 「東國詩集」 제2집을 내면서부터 7년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나오다 제8집에서 3년 쉬고 9집 62年에 나오더니 다시 그후 자취를 감추었다。「東國詩集」은 그동안, 거의 每輯마다 作品을 발표한 10여명씩의 同門詩人外에 延백여명의 學生詩人이 동참하여 총 4·2편의 作品을싣고 나온 詩집이 백6명을헤아렸다。詩人의 量이 반도지 詩人의 質에 비례하는바 아니겠으나 東國의 전통적 요소에서 文學—그 중에도 특히 詩文學을 배제치 않고 東國文學 내지 韓國文學 배제 韓國의 詩의 중요한 部面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상에서 요약해본 東國文學 내지 東國詩의 전통을 생각할때 지난5월 24일 그 發足을 본「東國詩人會」는 文學東國의 立場에서 韓國文學의 관점에서나 저 예술적 창작활동에 있어서 활동과 그성과를 객관적인 數値로만 측정한수만은 없겠으나 詩文學에있어서 유난히 종성한 개화를본 東國文學의 발상은 한국의新文學발상과 그시점을같이하여왔다。

그것은 처음 靈龍雲의 출현으로 대변될수있다。그의시집「님의 침묵」은 그때 신문학의 특징을 표현하고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이땅 초기 문단에 하나의지표가 되는것이다。더욱 불교적 휴머니즘을 배경으로한 東國의 추계문학의 사조적 원 흐름은 그때로 독특한 하나의 전통적개념으로서 東國大學이라는 하나의 에콜이 형성되어온 우발적인 체제라기보다, 그속에 오래 발효되어 나온 필연적인 윤곽이라 말하는 것이옵다。그것은처음 講院출신 숨려詩人群 佛專의 胚胎되어 중앙 佛專의 퇴폐적이요 회의적인 학생詩人群에 의하여 일단 그면모를 정비하고 이어 해방후의 혼란기에 다시 부닥치게 되었으나 이무렵 벌써 그문체는 찰스한 문학적 스타일을 마침내 文學作品으로서의 그 히을 벗고 나온 것이다。

이것은 해방후 東大文學에 와서 얼마간의 亂脈을 이룰수 밖에 없었으나 「東國學生詩集」의 第1輯이 翼河潤색문에 鄭靈三편집으로 1949년 5월에 창간되면서 다시現代文學의 特性이라할 수 있는 하나의 流派로서 그 焦點을 스스로 類約하는 기운을 보였다。

그러나 東國詩壇은 5·25로 일단 空白期를맞았으며 환도후 53年에 「東國詩集」 제2집을 내면서부터 7년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나오다 제8집에서 3년 쉬고 9집 62年에 나오더니 다시 그후 자취를 감추었다。「東國詩集」은 그동안, 거의 每輯마다 作品을 발표한 10여명씩의 同門詩人外에 延백여명의 學生詩人이 동참하여 총 4·2편의 作品을싣고 나온 詩집이 백6명을헤아렸다。詩人의 量이 반도지 詩人의 質에 비례하는바 아니겠으나 東國의 전통적 요소에서 文學—그 중에도 특히 詩文學을 배제치 않고 東國文學 내지 韓國文學 배제 韓國의 詩의 중요한 部面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東國詩文學 發展에 鼓舞的 推進

「詩集」 발간·「詩人賞」도

鼓舞的이며 뜻있는 일이 아닐수없다。

東國詩人會 會則

〈제1條〉이 會는 「東國詩人會」라 稱한다。

〈제2〉이 會는 서울에 둔다。

〈제3〉東國大學校출신 詩人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東國의詩文學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이 會는 「제3조」의 目的을달성하기위해 다음의事業을추진한다。

①會誌 「東國詩集」 발간

②東國詩人賞제정。

③기타 모교 발전을위한 행사。

〈제5〉東大出身詩人(東大出身과 東國詩集에 收錄詩人)과 東大 在學生으로서 詩壇에 登場한 者로 한다。

〈제6〉이 會에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會長(1명)

㉯副會長(2명)

㉰總務幹事·涉外幹事(각 1명)

㉱幹事(약간명)

㉲편집위원(약간명)

㉳監事(2명)

〈제7〉이 會에는 명예회원을 둘수 있다。

〈제8〉이 會의 회원은 이 會를 代表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故時에는 그 직무를 代行한다。

〈제9〉이 會의 정기총회는 매년 5월初에 개최하며 회원 3分의 1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회칙개정 임원개선, 豫算, 決算의 결한다。또 회장은 任員회의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할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일반회의는 會長 副會長 幹事로 성립된다。

〈제11〉회장, 부회장 監事는 총회에서 選出하고 幹事는 會長이 이 업이임금으로 한다。

〈제12〉이 會의 상비는 회비, 찬조금 사경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3〉이 會則에 明示되지 않은것은 通常慣例에 따른다。

이 會則은 1969년 5월 26일부터 효력을갖는다。

◇ 任員名單

▲會長=徐廷柱

▲副會長=童潤·黃命

▲編輯委員會 委員=徐廷柱·童潤·宋炳基·黃命·李東淵(涉外幹事)高英·金恩林·南九峰·浪承萬·文孝治·朴堤千·宋炳來·申基宣·尹明·李東柱·洪禧杓·黃命

▲幹事=宋赫(總務幹事)

〈단명員會人詩國東〉

姜敏 姜信鶴 姜奈烈 姜熙求 姜熙根
高英 高遠 具慶書 具永範 金光煥
金光會 金圭和 金南雄 金遠鎭 金甸植
金東俊 金炳搖 金秉顯 金思林 金尙憶
金先現 金時泰 金魚水 金龍福 金容喆
金元來 金潤 金腑顯 金義岩 金仁圭
金仁淑 金敬變 金鍾元 金昌煥 金哲
金初恩 南九峰 南斗植 浪承萬 馬鍾河
文允鎬 文孝治 閔雄植 朴國遠 朴烈我
朴炯植 朴貞姬 朴提千 朴晨燮 朴進昊
朴鎭煥 朴好吉 朴孝來 史相烈 徐龍雲
徐升海 徐廷柱 石東涯 石凡鎭 宋東均
宋油夏 宋哲來 宋赫 申庚林 申基宣
申癸湜 申瓚均 辛夕淳 辛良美 殷漢晶
余尙榮 吳化龍 柳基萬 柳承謹 劉麟鎬
尹明 尹錫浩 李圭成 李德珍 李東淵
李東柱 李丙疇 李祐鍾 李世熙
李愚碩 李祐鍾 李鎭出 李元燮 李林柱
李在福 李萬出 李晶大 李賢雨 李炯基
李哲範 林守鍾 林燦 張河麗
章湖 林基源 田鎭順 鄭先伊 鄭恩培
鄭義泓 全榮弼 曺秉武 趙商葉 趙宗玄
曺允鎬 鄭芝河 陳仁澤 千亞雨 崔慶子
崔基善 趙漢吉 崔元 崔元植 崔敏福
崔敏浩 崔英植 崔剛林 崔炯均 崔炳福
洪禧杓 黃甲周 黃命 「가나다順」

지탄받는 과열運動

밝은 理性 앞서야

學術는 각종선거의 열풍으로 어수선하다。선거가 부여된 特權이 權利형사는 아니나 근래에와서 이 현실적인양상으로볼때지성을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순수하게인식되고있다고는 볼수없을것이다。더우기매년 답습되고있는 캠퍼스의 선거풍토는 불신 부정(?) 인순환속에서 그여파는 社會的 문제로까지 대두되는것이 아니라 근대화의 인식의 빈곤을 가져온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의논리성 의의 빈곤을 가져온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이무렵이면 大學街는 각종선거의 열풍으로 어수선하다。선거가 부여된 特權이 權利형사는 아니나 근래에와서 이 현실적인양상으로볼때지성을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순수하게인식되고있다고는 볼수없을것이다。더우기매년 답습되고있는 캠퍼스의 선거풍토는 불신 부정(?) 인순환속에서 그여파는 社會的 문제로까지 대두되는것이 아니라 근대화의 인식의빈곤을 가져온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의논리성 의의 빈곤을 가져온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近況을 알아본「동문남매」—子는 이제 夫婦同門을 찾아 東國을거쳐간 이들 부부가 다시 찾아 東國의 同門夫婦。그들은 한 가정을 꾸민 이른바 同門夫婦。「자라 또 할때 자라 나란히 東國의 품에서 자라 또 할때 자라 나란히 東國의 속에서 유학한 일 있어며 또한 유학한 일 있어며 또한 유학한 일 있어며 또한

穀價政策이 農業生産에 미치는 影響

農林大주최「農村問題討論大會」수상작

高穀價政策으로 生産 의욕을

가격조절이 生産量좌우

부작용은보리의 二重穀價制로 보완

李 三 秀

◇… 우리나라는 전인구의 58%이상이 농업…◇
◇…에 종사하는 농업국이므로 농산물이 일반…◇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크다. 따라…◇
◇…서 농가정책은 농업생산은 물론 일반국민…◇
◇…경제에 그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생…◇
◇…산면에서 농민의 생산의욕을 좌우할 뿐…◇
◇…아니라 소비면에서는 곡물의 수요와 공급…◇
◇…의 크기를 결정하여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論者는 여기서 우리나라의 糧穀을…◇
◇…중심으로한 수요와 공급의 현황과 곡가정…◇
◇…책에 대한 기본 방향만 論하기로 한다. …◇

양곡의需給現況

과거에는 米穀수출국이었던 우리나라가 해방이후로 연2·4%의 인구자연증가와 1일1인당5·5%정도의 소비량의증가로 말미암아 식량의자급자족은커녕 매년 많은 양곡을 외곡에 의존하는 수입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농림부가 추산한 전체양곡의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비교적 풍작을 이룬 1966년도에는 수요량이 4115만석에비해 공급량이 4057만석으로 그부족량은 68만석에 불과했으나 2년동안 계속된 흉년지방의가뭄으로 1967년도에는 수요량이 5117만석, 공급량이 4941만석이고 68년도에는 수요량에비해 공급량이 6092만석에 지나지않아 876만석이라는 엄청난량의 양곡이 부족되었다. 이에따라 외국으로부터의 양곡수입실적을보면 66년도에 42만석, 67년도에는 81만석, 68년도에는 110만석, 92만석, 68년도이다. (자료=국제식량기구협회 1968년도 조사연구집) 더구나 올해엔 쌀만으로도 70만톤의 외곡을도입해야할 실정이니 이것은 1억2천만달러로서 우리나라의 외미의존도가 22%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68년도의 우리나라 수출총액이 5억불이라지만 많은 원자재와 기술등을 도입해야하는 까닭에 실제 외화획득은 30%인 1억5천만불 정도라고 볼 수있다.

여기에서 70년대부터는 對外借款의 元利償還額이 매년 1억달러이상에 달할것이므로 식량수입에 1억수천만달러의 외화를 낭비한다는것은 모처럼 이룩한 전인구의 58%이상이 농업…◇
◇…농산물이 일반…◇
◇…국민…◇
◇…생활…◇
◇…의 곡가정책을 좌우할 뿐…◇
◇…소비자에게는 충요한 糧穀을…◇
◇…곡가정…◇
◇…의 현황과 곡가정…◇
◇…문제점…◇
◇…한다. …◇

이상과 같이 정책적인 일환으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생산자인 농민에게도 증산의욕을 북돋울수있는 가격형성의 곡가정책으로서 하루빨리 식량의 자급자족의 길을 모색해야 하겠다.

穀價制度의 기본방향

○…… 필요성

穀價上昇은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하여 정부는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低穀價政策으로 일관하여왔다.

따라서 농민의 생산의욕을 잃게함으로서 농가소득을 감소시키고, 농가의 구매력을 저하시킴에 따라 工産品의 생산이 위축되어 국민산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다 농산물의 높은 가격수준과 그 보장이 생산량을 결정하는 최대의 요인이 된다는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 실례로서 유럽에는 高價에 의한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오히려 생산을 억제해야 할 정도로 EEC가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가하면 일본에서도 二重穀價制度下의 증산으로 처치곤란인 쌀 해묵은 古古米를 우리나라에 대여해준답시 일으킨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穀價가 10%오를에따라 생산량은 6%, 보리는 4%의 증산을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르는 증산을위한 곡가정책을 살펴보기로 하자.

○…… 二重穀價制度

생산자인 농민으로부터 비싼 값으로 구입하여소비자인 도시민에게는 싼값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다 만족시킬 제도를 시행하기엔커다란 난점이 있다. 財源을필요로 한다.

68년을 기준으로 상품화되는 米穀量만 收買하더래도 생산량의 절반인 1천2백50만석에 대한7백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이부족하다.

둘째 이중곡가제도는전면적인 통제 실시해야 아래배급제도를 고충이 따른다. 만약 이 통제하의 배급제도가 시행되지 않을경우 2중곡가를 이용한 악덕상행위가 派生하여 도시에서 싸게 구입한 쌀을 농촌으로 가져가서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에다시 팔을 필요로 하는 막대한 재정적인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인 2중 곡가제도의 매우 어렵다. 실시는 ○…… 高穀價 政策에 波吸되는 효과

생산자의 입장으로 보면 농산물가격이 상승하면 할수록 생산의욕을고취시켜 증산북돋울 위한 매우 장하여 도시경제에서 본다면 쌀값이 10%상승하면 쌀값이 12%감소하고, 보리의소비량은 38%나 증가 된다.

또 농가에서도 10%상승에따라 쌀소비량이 28%감소하는반처럼 희야가 또 벼락같은 소리를 질러서 놀라게 할까봐 겁이 났으나 오늘은 뱅싯거리며 꼭짝 않는다. 마음이 놓인 희야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삐죽거린다. 방이는 괜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희야는 금새 변덕을 부린다.

『그럼 있잖아, 쬐금만바 방이는 그리고 계집애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용기는 나지 않고 아까처럼 가슴만 뛴다.

『사내 대장부가 꼬추달린 값도 못해!』

가끔 잘 우는 방이에게 큰 소리를 치면 삼춘의 말이 언뜻 생각났다. 방이는 침을 꿀꺽 삼키고 용기를 냈다.

『희야야! 저기…, 너네 가게하고 우리 가게하고 바꾸지 않을래?』

참 멍충이 같은 소리가 나왔다고 생각하니, 방이는 공연히 몸이 움츠러든다.

『진짜루? 울 아빠한테 혼난다』

방이는 잔뜩 골이 났다.

『아버지! 우리두 희야네처럼 도깨비판이나 팔어유』

『그게 좋으냐? 우리방이두 이담에 장가가면 그 결차려 주지』

너덜 옷을 터뜨리는아버지는 남의 속도 모른다, 참말 답답하다.

〈희야 기집애-, 나쁜 기집애!〉

방이는 꽃 화분을 발로 푹 푹 건드렸다. 그때, 요란스럽게 가게 문을열면서 한 부인이 들어섰다. 올려다 보니 바로희야의 엄마다. 방이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고개를 틀려 못했다.

대머리를 긁적거리며 당황해하는 아버지의 우스운모습이 옆으로보인다. 희야가 무릎 꿇고 앉아 돌돌 말아 올리고 있는 마냥 시원스럽기만 하다.

희야네 집에서는 또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린다. 가게앞의 아스팔트길 위로 음악소리는 시끄럽게퍼지고 있다. 방이는 가게안을 기웃거렸다. 콘수염이 오돌 도돌 돋아난키가 전봇대같은 남학생들과 한 떼의 여학생들이 꽉들어차 있는것이 못마땅하다. 방이는 언제나처럼 약이 올랐다. 저희집 꽃은 한송이도 팔리지않는데 희야네 집은 언제나 손님이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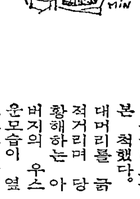
『썽, 우리집두 도깨비판이나 팔지』 남작동글하고 시커먼데에서 소리가나는 것이 하도 신기해서 방이는 언제나 레코오드판을도깨비판이라 부른다.

저의집과 희야네 가게를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깍쟁이로 이름난 계집애라서 들어줄리 없다. 방이는 저의엄마를 꼭닮은 희야가 참좋다. 그런데 희야는 늘 방이는 아이들하고 놀고 방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시무룩해진 방이가 저의집 꽃가게로들어가니, 여전히 손님은 하나도없다. 집으로 올라가는 담모퉁이를 돈는 방이의눈에 처음 희야가 또 벼락같은 소리를 질러서 놀라게 할까봐 겁이 났으나 오늘은 뱅싯거리며 꼭짝 않는다. 마음이 놓인 희야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삐죽거린다. 방이는 괜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희야는 금새 변덕을 부린다.

『그럼 있잖아, 쬐금만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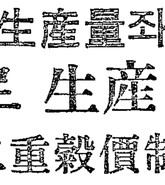


詩部佳作 2席

江

이 만 재

〈광성고 3年〉



詩部佳作1席

아침의노래

조 동 식

〈경동고2년〉

안개를 가늡하며
토함산을 올라
동해의 연안을 가슴에 물이면

파도를 헤집고 올라서는
태양의 끝머리가
석굴암 깊숙히 파고 든다.
그 슬한 고목들과 같이 호흡히던
바위등을 타고서
두 발 모두는
한마리 개미의 모습

점화된 불상의 눈동자는
이 조그마한 몸에도 입맞춤하여.
사진이라도 찍어두고픈 마음은
불국사 석탑을 오른다.

수액을 거두어 올리는
주름진 나무들
가쟁이 사이로
다시금 햇살이 스미고

나는
고목 밑동치서
언어를 모우고
시력을 높히며
나의 하늘을 연다.

全國고교생 文學공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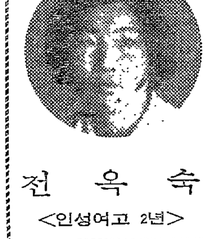
白日場 入賞作들

隨筆部佳作 2席

新 綠

전 옥 숙

〈인성여고 2년〉



小說部佳作2席

約 束

박 남 준

〈성신여고 2년〉

박 남 준 양